

남성 암 조기 발견



퀸즐랜드 남성 2명 중 1명은 85세 이전에 암에 걸립니다.

대장암

대장암은 호주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 사망 원인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 90%의 경우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국가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은 해당 자격을 갖춘 50-74세의 호주인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자신의 집에서 무료로 선별 검사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퀸즐랜드 암협회는 2년마다 분변 잠혈 검사(FOBT)를 통해 대장암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 118 868**번으로 국가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에 문의하시거나 cancerscreening.gov.au/bowel 을 방문하세요.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호주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입니다.

전립선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간단한 단일 검사는 없습니다.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검사는 전립선 특이 항원(PSA) 혈액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Digital Rectal Examination, DRE)입니다. 이 검사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사용되며, 전립선의 변화를 보여줄 뿐, 암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두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추가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에 대해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전립선암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세요.

고환암

고환암은 흔한 암은 아니지만, 30세에서 39세 사이의 젊은 남성에게서 피부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진단되는 암입니다.

선별 검사는 없지만, 모든 암 중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예후는 암의 유형과 병기뿐만 아니라 진단 당시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상적 상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고환이 붓거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고환의 크기나 모양이 변하는 등의 변화를 보거나 느끼면 의사의 진찰을 받으도록 하세요.

피부암

퀸즐랜드는 세계에서 피부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일 년 내내 선스마트(SunSmart)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피부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고 정기적으로 피부를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근깨나 점, 혹은 새로 생기거나 크기, 모양, 색이 변하거나 4~6주 동안 낫지 않는 상처가 있으면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암을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결과와 장기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cancerqld.org.au/lifestyle6

발행: 2023년 1월
EARLY DETECTION OF CANCER FOR MEN

LIFESTYLE 6
Reduce your risk

An initiative of
Cancer Council
Queensland

Korean | 한국어 22041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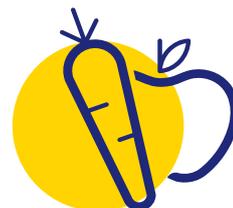
금연
하기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기



신체
활동하기



건강한 식단
섭취하기



알코올
제한하기



자신의 몸
알기



암 검진에
참여하기

자세한 정보는 **13 11 20**번으로 전화하거나
cancerqld.org.au를 방문하세요.